

# 이곳에는 '홍차' 이전에도 차가 있었을까?



## 茶와 불교를 찾아 떠난 스리랑카 ①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

불교와 차(茶)의 나라 스리랑카는 불교국가일 뿐 만 아니라, '실론 티'로 대표되는 뛰어난 홍차문화를 가지고 있는 '차의 나라'이기도 하다.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스리랑카의 불교와 차 문화를 찾기 위한 보름간의 여정에 올랐다. 스리랑카의 불교와 차 문화를 소개하는 박 소장의 글을 3회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주

'인도의 눈물'이라는 별호를 가진 천혜의 땅, 스리랑카는 실론 홍차(Ceylon black tea)가 매우 유명하다. 오랫동안 차와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티라 스리랑카를 생각하면 늘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이 있었다. 스리랑카에는 홍차가 나오기 전부터 차가 있었을까, 사원에서 스님들이 차를 마시는가 하는 점이다. 달마 이후 불교가 차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스리랑카 차를 참고해 볼 이유는 분명해 보였다.

지난 1월 19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불교를 연구해 온 임훈기 선생 내외가 우리 일행을 초청해 준 것이다. 그들은 현지 사정에 밝고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이며, 스님들과 교류가 깊다하니 기대가 컸다.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자정을 넘겨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막 도착한 낯선 인파들이 입국대 주변으로 몰리고 떠러는 긴 여행에 지친 듯 연신 하품을 해댄다. 공항 밖에 걸었던 차발 사진, 타일 여인의 미

소 속연 애잔한 슬픔이 어려 있다. 알싸한 냄새와 뒤엀 달달하고 짙은 열대 꽃향기, 열대의 후답지근한 열기가 녹록한 기세는 아니다. 이수룩하고 이득한 도로와 건축물들, 분초를 다루는 긴장감이나 번들번들한 도화의 세련과는 거리가 멀다. 60년대 말, 우리의 거리 풍경과 닮았다. 이렇게 이 땅과의 첫 대면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재잘거리는 세소리에 눈을 떴다. 이미 창밖이 환하다. 침대에 처진 모기장, 벽에 붙은 작은 도마뱀은 이 집의 오랜 주인인 양 미동조차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마도 불교의 영향과 자연에서 터득한 지혜인 듯하다. 특히 열대 지역인 이곳의 가옥은 바람이 잘 소통되고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는 구조로 천장이 높다. 아래층은 거실 같은 개념이고 주로 이층에 침실과 서재가 있다. 습하고 무더운 환경에서 더위와 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책에는 삶의 지혜가 묻어 있다.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는 소녀, 맑은 눈이 인상적이다.

이들은 주로 코코넛 우유를 넣고 만든 다양한 카레, 눈을 밝게 한다는 나물, 삼바, 키커리삼바라고 부르는 찹기 없는 쌀로 만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을 때 오른손을 사용하며, 오른손을 중시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토기로 만든 투박하고 정감 있는 뚝배기를 사용한다. 이 질박한 그릇에 담긴 성의 있는 음식들은 재료에 따라 형형색색의 조화로운 빛깔로 들어난다. 이들은 조금은 가난하지만, 물질에 찌들고 살핀 가여운 도회인과 다른 기품이 있다. 오래 전 잊어버린 진실한 생활의 리듬들이 어렴풋이 되살아났다.

한편 집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불단이나 수호신을 모시는 단이 있어서 꽃과 향을 올린다. 뽀야에이(15일)같은 특별한 날은 코코넛우유를 넣어 만든 밥을 부처님께 올리며, 이날은 휴일로 사원에 가서 부처님을 참배한다. 불교는 이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그들은 부처를 믿고자한다. 어쩌면 불교는 이들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자부심이며 긍지이다. 스리랑카를 불교국가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원의 부처님을 참배할 때 흰 옷을 입는 것이 상식이다. 부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길 바라는 것이리라. 이들은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음식, 혹은 향을 올린다. 경이로운 일은 부처님 앞에 놓인 공양물이니 막 올리려는 꽃에 손을 잠시 대기

만하여도 함께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 된다. 사원에 들어 갈 때는 누구라도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사원이나 입구에는 어김없이 신발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 열대의 뜨거운 햇볕에 담겨진 돌 위를 걷는 일은 보통이 아니다. 발바닥이 뜨거워 도저히 걷기가 어렵다. 석굴사원에 서 공양을 치르고 얻은 묘안은 양팔을 준비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이곳 남자들은 사물을 입고 여자는 사리를 입는다. 스리랑카의 인종과 종교를 대략 살펴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싱할라인이며 실론타밀족, 인디안타밀, 무어족, 무수림족으로 구성된 다종족 국가다.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69.3%)를 믿으며, 힌두교(15.5%), 가톨릭, 무슬림, 신크를 믿는다. 이들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지만 이들의 언어는 영국의 식민시대 영향으로 영어와 싱할라어를 공용하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이 의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문맹이 거의 없으며, 교육열이 매우 높은

편이란다. 국민의 의료도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사회 제도는 일찍부터 비교적 선진적인 틀을 갖추었지만 오랜 내전과 정치적 혼란으로 집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가 여행 도중, 갑자기 귀가 아파 가장 가까운 지역인 캔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의사가 직접 진료를 받는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의·약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있다고 한다. 이곳의 의료 혜택은 제도적인 여건보다 시급한 것이 절적인 문제일 듯하다.

더구나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북부 타밀족과 스리랑카정부 간의 갈등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듯,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란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전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산발적인 폭탄테러는 정국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었다. 수도인 콜롬보 거리에 총을 든 군인들이 늘어서 있고 거리 곳곳에서 검문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 문맹이 거의 없으며, 교육열이 매우 높은

주치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는다. 또 하나 기이한 풍경은 고개를 좌우로 살랑 살랑 흔들며 대화하는 풍경이다. "그래 맞아"라든지 "좋다"라는 뜻이란다.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는 모습에는 그들의 특유한 유연성과 리듬이 있다.

한편 스리랑카에는 어디를 가든지 크고 작은 호수가 많다. 임 선생의 이야기로는 역대 훌륭한 임금들은 물을 잘 관리할 줄 알았으며, 치수(治水)에 힘썼다고 한다. 열대 지역에서는 물이 곧 생명임을 익히 알기 때문에 물을 잘 다루는 일은 이들의 오랜 전통이다. 특히 아자수는 신이 내린 생명수란다. 무더운 열대기후를 견디는 힘이 아자열매에서 나온다고 믿을 만큼 아자나무가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하다. 나무와 잎, 아자열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보배 중보 보배이다. 노란색의 아지는 음료용이며, 파란 색은 코코넛 우유를 만드는 조리용이다. 또 아자나무가 소금기를 좋아하여 들뜬이나 산간에서 자라는 아자나무에 가끔씩 소금을 준 다니 신기한 일이다. <계속>

## 실론차로 유명...인구70% 불교신자 · 교육열높아 생명있는 것들과 더불어 살기...불교·자연에서 배워



달볼라 석굴사원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약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인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2008년도 영남범음범패 및 작법무 제5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8년 3월 15일**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매주 : 토요일 오후 3시 회비 월10만원 (누음기, 필기구 준비)

- ▶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1개월) (요령, 목탁치는법, 도량성, 새벽중성, 조석예불, 각단불공)
- ▶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5개월) (상용영반, 중시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명시식, [비문(초상집영물)]
- ▶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천도재 (1년) (범패, 징, 강쇠, 북, 호적(대령소))
- ▶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3년) (집안식, 예수재, 수록재, 영산재 등 모든 과정)
- ▶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라춤 (1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회비 월10만원

◇ 자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사찰의 규모가 큰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 전통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중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命星 (九星氣學)**

자신自身을 살리고 죽이는 상생상극相生相剋 천중살天中殺, 간지비법卦支秘法

- 구성 간지지법
- 구성실례(비방·비방) 공개
- 구기성(九氣星)으로 보는 년운(年運)

이 책 한 권으로 자신의 운명 바이오리듬을 알게 되고, 직업과 적성, 동업 관계, 재물을 얻는 시기, 집 장만, 결혼, 연애, 섹스, 부부 상생 상극 관계, 시합 합격, 이혼, 재혼, 자식 번영, 택일, 이사 등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특히 간지점사(干支占事) 비법은 100% 효용이 발휘된다.

양장본 / 812쪽 / 값39,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창판** 100부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한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터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867-0844,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